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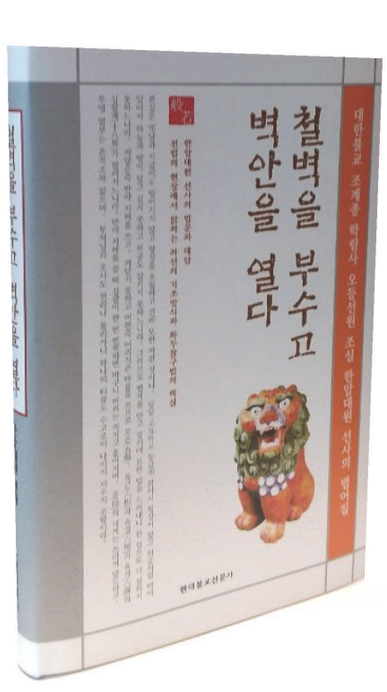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